

2015. 9. 14. ~ 9. 20. 주간

51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가을감자, 마늘 재배의향 속보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과일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농식품 수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aT,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도 개발 우수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도내업체에 이전

아시아 열대지역 적응 온대벼 '아세미1호' 개발

정책동향

영광에 산림박물관 개관·숲 체험교육 장 기대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해외 농업정보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하락세 지속

해외 곡물시장 상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 9. 14)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19도, 최고기온: 24~27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2~7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1% 감소
- 마늘, 대서종을 중심으로 마늘 재배의향 증가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양파 · 마늘

- 양 파 : 전월과 비슷한 1,400~ 1,600원/kg으로 예상
- 마 늘 : 전월 대비 보합세인 4,400~4,800원/kg으로 전망

▶ 과 일 : 단감 · 복숭아

- 단 감 : 전년보다 낮은 41,000~43,000원/10kg으로 전망
- 복숭아 : 엘버트(유모계)는 전년보다 높은 21,000~23,000원/4.5kg
황도(유모계)는 전년보다 높은 17,000~19,000원/4.5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 ▶ 여수시, '기능성잡곡' 육성 사업 순항...웰빙잡곡 수수 수확
- ▶ 비가림 시설로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품질향상
- ▶ 화순군, 조생종 벼 첫 수확 본격적인 가을걷이 시작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과 對일본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일본 방문
- ▶ 농식품 수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 aT,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도 개발 우수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도내업체에 이전
- ▶ 도 농기원,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실천 결의 확산
- ▶ 농촌진흥청 개발 미생물복합제 친환경 농업 희망 쏜다
- ▶ 점정쌀, 일반 벼보다 5일 일찍 수확하세요!
- ▶ 아시아 열대지역 적응 온대벼 '아세미1호' 개발
- ▶ 프리지어 양액재배 기술개발
- ▶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개발기술 실용화나서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 동물복지 축산농장, 안전성 확인
- ▶ 추석 앞두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 영광에 산림박물관 개관...숲 체험교육 장 기대
- ▶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 ▶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하락세 지속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숯커버링과 옥수수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함.
 - 옥수수 선물가격은 무역거래가 다소 증가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USDA 월간 수급보고서는 전함. 공급 우려의 확대와 예상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 대두 선물가격은 '15/16년 대두 공급량 및 생산량, 기말재고량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에 강보합 마감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2016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대상자 공모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개소 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 지원(사업신청) 한도는 개소 당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가을바람과 함께 넉넉해지는 9월 농촌축제

- 축 제 명 : 제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 기 간 : 2015. 9. 18.~9. 20.
- 장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 주요행사 : 사과수확체험, 승마체험, 동물농장, 이벤트 등
- 축 제 명 : 제19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 기 간 : 2015. 9. 18.~9. 20.
-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 주요행사 : 레크리에이션, 품바공연, 팔씨름대회, 전국 복숭아가요제 등
- 축 제 명 : 강원 영월 김삿갓 포도 축제
- 기 간 : 2015. 9. 19
- 장 소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포도공원
- 주요행사 : 체험행사, 포도전시, 이벤트, 농산물 시식 및 판매 등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9. 1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14)	전주 (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133	↓ 6.6	↓ 3.2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9,000	142,000	193,100	↓ 3.5	↓ 29.1
	고구마(밤)	10kg	25,400	26,200	30,450	24,100	27,880	↑ 5.4	↓ 8.9
	감자(수미)	20kg	24,600	25,000	25,900	23,200	26,947	↑ 6.0	↓ 8.7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580	610	755	848	1,220	↓ 31.6	↓ 52.5
	양배추	10kg	6,800	7,300	7,200	4,735	9,907	↑ 43.6	↓ 31.4
	오이(다다기계통)	10kg	23,667	19,667	21,917	22,500	30,397	↑ 5.2	↓ 22.1
	애호박	8kg	15,800	16,200	12,700	14,000	26,943	↑ 12.9	↓ 41.4
	토마토	10kg	26,800	22,400	17,000	17,250	31,817	↑ 55.4	↓ 15.8
	무(고랭지)	20kg	8,000	9,800	13,950	11,500	18,043	↓ 30.4	↓ 55.7
	당근	20kg	32,400	32,000	29,600	56,000	40,740	↓ 42.1	↓ 20.5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30,000	820,000	879,000	919,667	↓ 5.6	↓ 9.7
	풋고추	10kg	24,800	23,000	25,700	62,050	57,560	↓ 60.0	↓ 56.9
	마늘(난지)	10kg	45,400	45,400	46,000	33,400	35,500	↑ 35.9	↑ 27.9
	양파	20kg	28,000	28,000	27,650	10,520	17,560	↑ 166.2	↑ 59.5
	대파	1kg	1,950	1,930	2,010	1,435	2,158	↑ 35.9	↓ 9.6
	파프리카	5kg	30,600	25,400	13,500	31,200	34,963	↓ 1.9	↓ 12.5
	방울토마토	5kg	15,200	14,800	12,550	9,800	22,583	↑ 55.1	↓ 32.7
	수박	1개	11,400	12,800	15,350	8,600	14,463	↑ 32.6	↓ 21.2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	-	67,800	-	-	-	-
	배(신고)	15kg	36,200	30,200	38,300	41,900	46,450	↓ 13.6	↓ 22.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9/14)	전주 (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2,000	520,000	556,333	↑ 1.9	↓ 4.7
	들깨	45kg	422,000	420,000	420,000	438,000	339,933	↓ 3.7	↑ 24.1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7,200	8,350	9,795	↓ 1.8	↓ 16.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54	7,511	7,218	6,854	6,664	↑ 10.2	↑ 13.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30	2,137	2,233	2,169	1,924	↓ 1.8	↑ 10.7
	닭고기	1kg	5,242	5,180	5,352	4,964	5,315	↑ 5.6	↓ 1.4
	계란(특란)	30개	5,740	5,742	5,781	5,719	5,631	↑ 0.4	↑ 1.9
	우유	1리터	2,547	2,547	2,548	2,548	2,358	↑ 0.0	↑ 8.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9. 14.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84 천원	5,379 천원	4,542 천원	↑ 3.8	↑ 22.9
	거세	6,956 "	6,972 "	5,648 "	↓ 0.2	↑ 23.2
송아지 (6~7월)	암	2,748 "	2,763 "	1,928 "	↓ 0.5	↑ 42.5
	수	3,420 "	3,410 "	2,737 "	↑ 0.3	↑ 25.0
육우(600Kg)		3,648 "	3,534 "	3,114 "	↑ 3.2	↑ 17.1
젖소수송아지(7일령)		305 "	300 "	19 "	↑ 1.7	↑ 1505.3
돼지(110kg)		388 "	427 "	399 "	↓ 9.1	↓ 2.8
육계(원/kg)		1,085 원	1,057 원	1,229 원	↑ 2.6	↓ 11.7
계란(원/특란10개)		1,259 "	1,257 "	1,393 "	↑ 0.2	↓ 9.6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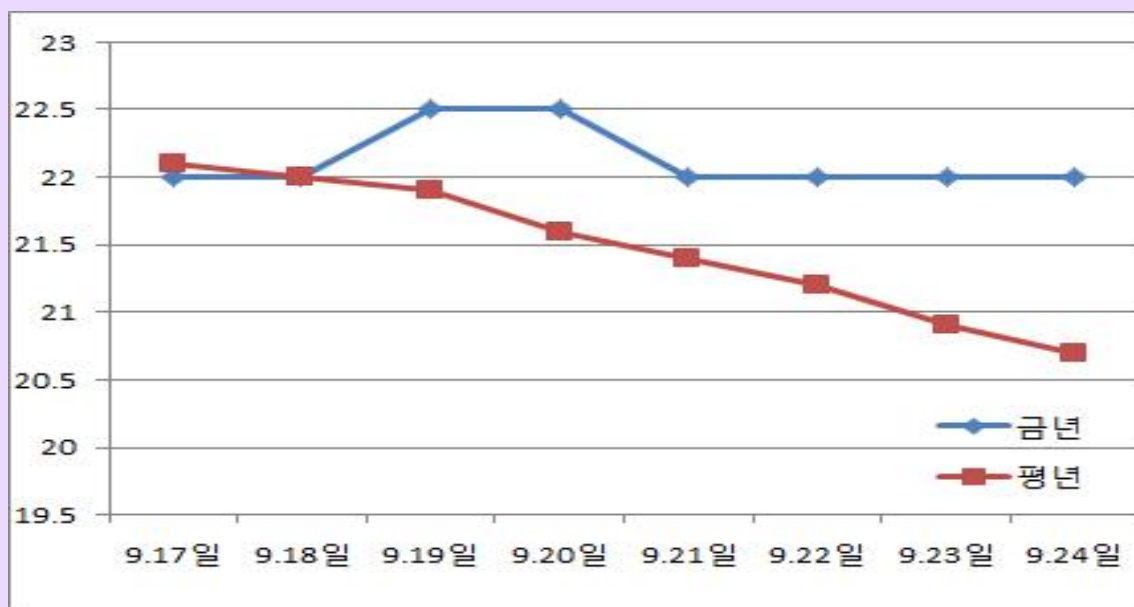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22.1	21.5	0.7	26.3	26.3	-0.1	18.0	17.8	0.5	4.4
9. 17.(목)	22	22.1	-0.1	26	26.8	-0.8	18	18.5	0.5	6.1
9. 18.(금)	22	22	0	26	26.8	-0.8	18	18.4	0.4	5.6
9. 19.(토)	22.5	21.9	0.6	27	26.7	0.3	18	18.2	0.2	4.9
9. 20.(일)	22.5	21.6	0.9	27	26.5	0.5	18	17.9	0.1	4.5
9. 21.(월)	22	21.4	0.6	26	26.2	-0.2	18	17.7	0.3	4.6
9. 22.(화)	22	21.2	0.8	26	26	0	18	17.5	0.5	4.3
9. 23.(수)	22	20.9	1.1	26	25.8	0.2	18	17.2	0.8	3
9. 24.(목)	22	20.7	1.3	26	25.7	0.3	18	16.9	1.1	2.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가을감자, 마늘 재배 동향

□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1% 감소

- 육지부와 제주지역의 가을감자 재배의향을 고려한 전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주지역의 가을감자(대지) 재배의향면적은 콩, 양배추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져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육지부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노지 봄감자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늘, 대서종을 중심으로 마늘 재배의향 증가

-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015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한지형이 4%, 난지형 남도종이 6%, 대서종이 1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산 마늘 전체 재배의향면적은 난지형 대서종을 중심으로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충청과 영남의 난지형 마늘 재배의향은 10% 이상 증가하고, 남도종 주산지인 호남도 전년 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의 마늘 재배의향 면적은 최근 양파, 양채류 등의 재배의향이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4%p 감소하였다.
- 농업관측센터 재배의향을 적용한 2016년산 마늘 재배 면적은 22,328ha로 전년보다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6년산 마늘 재배의향은 향후 종자 확보와 대체작목 시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양파 · 마늘

○ (양 파)

- 9월 양파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1,400~ 1,600원/kg으로 예상

○ (마 늘)

- 9월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인 4,400~4,800원/kg으로
전망된다.

과 일 : 단감 · 복숭아

○ (단 감)

- 평균도매가격은 전년(4만 5천원)보다 낮은 41,000~43,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된다.

○ (복숭아)

- 엘버트(유모계)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21,000~23,000원/상품 4.5kg,
황도(유모계)도 전년보다 높은 17,000~19,000원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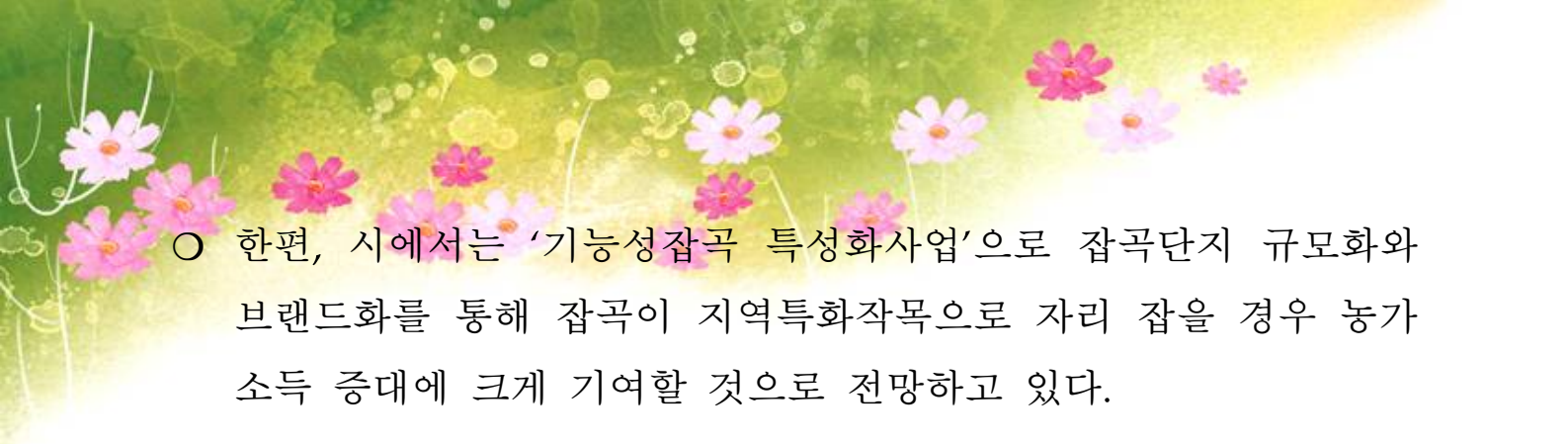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여수시, ‘기능성잡곡’ 육성 사업 순항...웰빙잡곡 수수 수확

- 기능성잡곡 특성화사업으로 여수잡곡 브랜드화 추진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기능성잡곡 지역 농업특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국비 등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잡곡단지 조성 및 생력화, 브랜드화, 가공식품 개발, 6차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근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기능성물질이 많이 함유된 잡곡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여수시는 울춘면과 화양면 일원에 조, 기장, 수수 등 잡곡단지 24ha를 조성하고, 최근에 질 좋은 수수를 처음으로 수확했다.
- 시는 잡곡 브랜드화를 위해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잡곡산업 육성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잡곡재배 기술교육과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해 왔다. 또 생력기계(노동력 절감 장비)구입과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등에 힘쓰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가공식품 개발, 저온저장시설 완비에도 주력하고 있다.
- 기능성잡곡단지에는 9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수잡곡영농 조합법인에서 수매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게 500g~2kg씩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혼합곡으로 구성된 잡곡 꾸러미 선물 세트는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잡곡이 국내 대표 웰빙잡곡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잡곡재배를 위한 기술지원을 늘려나가고, 6차산업화를 위해 가공식품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한편, 시에서는 ‘기능성잡곡 특성화사업’으로 잡곡단지 규모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잡곡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을 경우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 비가림 시설로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품질향상

- 당도는 높고, 열과현상·갈반병·엽소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
- 완도군이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 지원한 비가림시설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완도 해변포도는 청정해역의 햇살과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과 당도가 높고 대부분의 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어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하지만 8월부터 9월 사이 집중적인 호우시에 일조부족과 과습으로 열과(포도알이 터지는)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군에서는 비가림 설치가 가능한 포도밭을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6개소, 0.8ha)을 설치 지원하였다.
- 비가림 시설 설치 해변포도의 생육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노지 포장에 비해 당도가 평균 1.5Brix 높았으며, 열과현상, 갈반병, 엽소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위윤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해변포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가진

해변포도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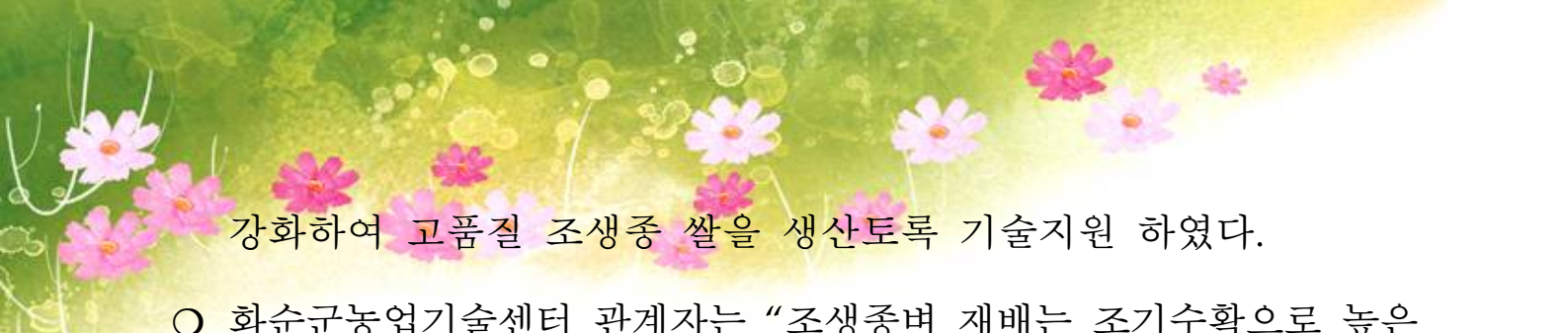
- 한편, 해변포도는 8월 하순부터 본격 수확·판매하고 있으며, 포도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당도 측정을 하여 당일 수확한 포도만 판매 중이다.

* 출처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 화순군, 조생종 벼 첫 수확 본격적인 가을걷이 시작

- 26농가 27.5ha 수확, 추석 명절 햅쌀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 기대 -

- 화순군(군수 구충곤)에서는 남면 사호리에 거주하는 이명선씨가 올해 첫 벼베기를 지난 26일 실시하고 본격적인 가을걷이 시작을 알렸다.
- 이번에 수확한 운광벼는 조생종 품종으로 미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아 농가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올해 추석 판매를 목표로 지난 4.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동면과 남면 26농가 27.5ha에 모내기를 하여 140톤의 수확이 예상되며 전량을 천운농협(조합장 박판석)에서 수매·유통·판매하는 방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벼 작황은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병해충 발생이 작년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벼 생육상태가 좋아 고품질 쌀 생산이 예상된다.
- 한편, 조생종 벼 생산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에서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특성, 재배 시 유의사항, 병해충 적기 방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육 시기별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고품질 조생종 쌀을 생산토록 기술지원 하였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조생종벼 재배는 조기수확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벼멸구 등 병해충 피해를 피할 수 있고 중만생종 품종 집중 재배에 따른 태풍 등 기상재해를 분산할 수 있어 앞으로도 조기 재배를 점차 확대 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와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 화순군, 벼 병해충 집중방제 기간 설정 방제 총력

- 벼멸구, 흑명나방, 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 방제 기간 8.7.~ 17.까지 -

-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강우로 벼 병해충이 만연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8월 7일 ~ 17일, 11일간)을 설정하여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방제할 대상은 벼의 이삭패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삭도열병 예방과 멸구류(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먹노린재, 잎집무늬마름병 등이다.
- 멸구류는 현재 밀도가 높지 않으나 벼 병해충 예찰답과 일부 논에서 흰등멸구가 발견되고 있어 향후 고온 지속 시 증식에 좋은 조건이 유지됨에 따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번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벼 포기 아래쪽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뿌려 주어야한다.

- 특히, 금년 7월에 기승을 부렸던 먹노린재가 8월 중순 이후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면서 숫자가 늘어나 다시 번성 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본방제기간에 꼭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삭도열병은 한번 발생이 되면 치유가 안되기 때문에 이삭이 한·두개 패기 시작 할 때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주어야 하며, 금년에 잎도열병이 발생하였던 논은 방제가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연결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이번 집중 방제 기간에 친환경단지와 일반단지를 구분하여 적용약제를 반드시 살포하고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관수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과 對일본 우리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일본 방문

-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를 통해 농업분야 3국 협력 방안 논의,
수출상담회 및 판촉행사 등 개최를 통해 제2의 농식품 한류붐 조성 -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2일(토)부터 9월 15일(화) 기간 동안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의 국제적 협력방안 마련·확산을 위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와 최근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對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 9.12, 공식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9.13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식량안보, 동식물질병 대응 등에 대한 한중일 3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난 '12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1차 회의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 이동필 장관은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기간중 한·일, 한·중 간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양국간 농정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동필 장관은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담의 공식일정 종료 후, 14, 15일 이틀 간 일본 현지에서 對日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일본 수입 바이어 및 소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농식품 수출 상담회, 한식 토크 콘서트, 프리미엄 막걸리 팝업 스토어 등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수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농식품부·aT, 농식품 수출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9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 수출 성공사례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환변동, 세계 경제둔화, 비관세장벽 확대 등 최근 국내·외 어려운 농식품 수출여건 하에서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출업체, 정부, 대학생 등이 참석하여 농식품 수출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공사례 발표업체는 머쉬엠(버섯), NH무역(신신농산물), 코메가(생들깨기름), 삼진글로벌넷(종합식품), 퓨어플러스(음료류) 5개사로 수출품목 발굴 및 품질향상, 신시장 개척, 수출 단계 개선 등 핵심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노하우를 설명하였다.
- 유충식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 7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3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하였으며,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시장 수출이 부진한 상황으로 농식품 무역적자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의욕 고취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타 업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지 점검하고 어려운 수출여건을 이겨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aT,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

-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할랄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아랍에미리트(UAE)에 아부다비 사무소를 설치하고 9월 1일 11시(현지 시각)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번 개소식에는 권해룡 주 UAE 대사, 후메이드(Humaid Al-Hammadi) 한-UAE 우호협회 회장, 살림(Salim M.A) 루루마켓 총괄이사, 이영규 UAE 한인회 회장, 신동철 아프리카·중동 한상 연합회 회장 등 다수가 참석했다.
- 중동지역은 한국 기업들이 1970년대 건설분야로 진출하면서 이른바 ‘중동 붐’을 일으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된 지역이다. 또한 최근 급성장세에 있는 할랄식품의 대표 시장이기도 하다. aT는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알마야(AL MAYA)와 MOU를 체결하여 중동지역에서 생산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재수 aT 사장은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는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거점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한국식품을 널리 알리고 중동지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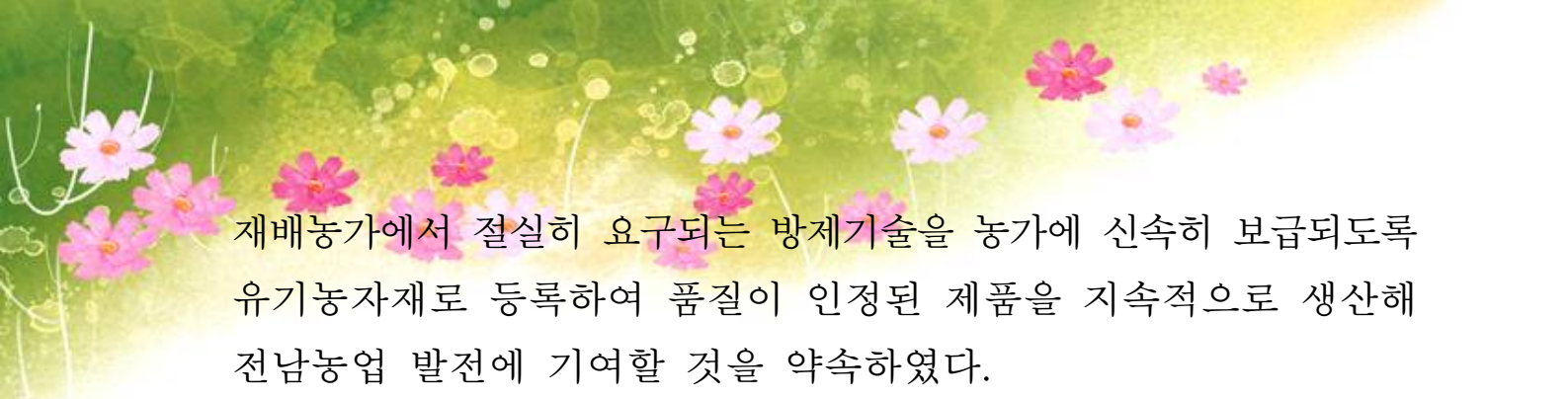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도 개발 우수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도내업체에 이전

- 적극적 판촉 결과 수도권 한식당·학교급식 기업체 구내식당 공급 확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최경주 원장)은 9월 11일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기술 5건을 도내업체에 이전하였다. 발명 기술은 천연물 이용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조성물과 천연정유 생산기술로서, 「벼멸구 방제용 식물 조성물」, 「딸기 병해충 동시 방제제」, 「벼 해충 동시방제제」, 「딸기 잣빛곰팡이병 및 흰가루병 동시 방제제」 등 4건은 전남 담양군 무정면 소재 (주)팜스코리아에, 「방향성 정유 물수증기 증류장치」 1건은 화순군 소재 뉴뷰다스에 각각 3년 동안 제품생산과 판매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다.
-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조성물 특허기술은 식물추출물과 황 등을 함유한 제품으로서 한번 살포하면 딸기 잣빛곰팡이병 67.8%, 점박이응애 99.3%, 목화진딧물 98.2%를 방제할 수 있다. 특히 벼 초기해충인 벼물바구미와 벼줄기굴파리를 이양전 80g을 상자 처리 함으로써 90% 이상 방제할 수 있고 딸기 병해 동시방제는 잣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을 62%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들 제품을 사용하면 기존 살포 노동력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자재비도 4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와 같은 기술을 산업체에 재 이전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전남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을 이전 받아 상품화에 성공한 (주)팜스코리아 김진섭 대표는 전남의 유기농업 면적의 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농가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방제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유기농자재로 등록하여 품질이 인정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전남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 「방향성 정유 물수증기 증류장치」는 수증기 증류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식물로부터 천연 정유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로써 농가 또는 소규모 기업체에서 저비용 고수율의 방향성 천연 정유와 화장수를 생산하여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 본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천오-편백(뉴뷰다스) 광화옥 대표는 편백 방향제로 연간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수출을 위한 제품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특허기술 재 이전 협약체결로 향후 3년 동안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게 되며 2개 업체로부터 10,800천원의 선급기술료를 받게 된다.
- 농업경영연구소 임경호 소장은 「모든 연구의 원천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사업을 펼치면서 전남 농특산 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도농기원,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실천 결의 확산

-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원 한마음 대회 개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저비용 고소득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한마음 대회를 22개 시군 생활개선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0일 여수진남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우리 도 농정목표인 유기농업 내실화 및 생산비 절감 농업기술 확산과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생활개선회의 위상을 높이고 결속을 다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다.
- 전남의 1만여 생활개선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배우면서 실천하는 농촌의 주역으로서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을 확산하고, 꿈이 있는 농업, 살맛 나는 농촌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또한 우리 도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로 만든 떡 나누기 행사와 22개 시·군의 대표 쌀 퍼포먼스를 통해 유기농 명품 전남 쌀을 홍보하였다.
- 특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매년 생활개선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1,000kg 내외의 쌀을 모금하여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 생활개선회는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하여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로 발전해 오면서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조직된 농업인학습단체로서 현재 도내에 268개회 9,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강현옥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껏 농업·농촌을 지켜왔던 여성농업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살기 좋은 전남, 부자 되는 전남을 만드는데 작은 밑알이 되자.”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개발 미생물복합제 친환경 농업 희망 쏜다

- 고랭지 여름배추 현장 적용 생산량 60% 이상 증가 등 효과 톡톡 -

-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 이상기온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미생물복합제가 영농 현장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면서 친환경농업의 희망이 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친환경 미생물복합제를 개발해 고랭지 여름배추에 적용한 결과, 생체중이 6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복합제는 식물의 뿌리 주변 토양에 사는 세균의 일종(바실러스 발리스모르티스 BS07M)과 이 균주가 생산하는 아미노산 결합체(다이펩타이드), 그리고 칼슘을 혼합한 것이다.
- 이 미생물 균주는 2012년 선발한 미생물로서, 작물의 뿌리에 뿌리면 ‘옥신(auxin)’ 같은 식물 생장호르몬을 분비해 세포벽이 두꺼워지고 뿌리가 잘 자라며 잎의 엽록소가 증가하는 등 작물의 생육을 촉진해 수확량을 높인다.
- 농가 현장 적용 결과, 미생물 복합처리제를 배추의 어린 모종에 매주 3회 처리했을 때 무름병 발생이 억제되고 배추의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수확기인 8월 말을 기준으로 2년간 조사한 결과 무처리 배추에 비해 무름병이 57% 줄었고, 무게는 무처리의 경우 평균 2.4kg인데 비해 미생물복합제 처리는 평균 4.0kg으로 60% 늘었다.
- 또한, 38℃의 이상고온에서도 무처리 배추에 비해 생존율이 9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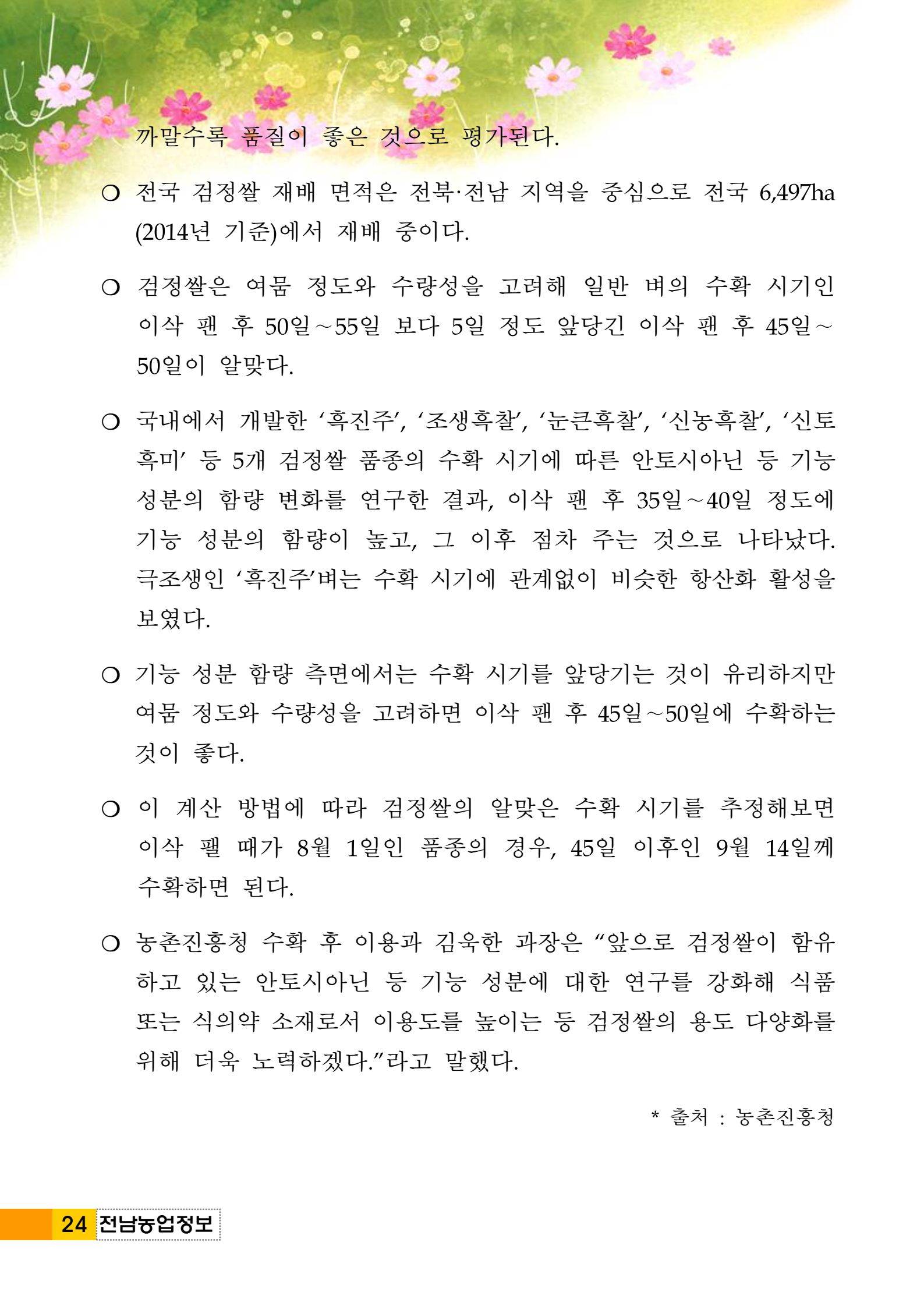
- 연구진은 배추뿐 아니라 고추 등 다양한 농작물에도 지난해부터 현장 적용 시험 중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 미생물균주(바실러스 발리스모르티스 BS07M)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 2개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상용화했다.
- 또, 이 균주가 생산한 면역활성 물질(다이펩타이드)은 제조법과 물질 특허 등 모두 10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등 5개 나라에도 특허출원해 등록을 앞두고 있다.
-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복합제 기술도 빠른 시간 안에 특허를 출원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박경석 연구관은 “이번에 개발한 친환경 미생물복합제를 처리했을 때 농작물의 생육 촉진은 물론, 환경 장애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이 제제는 무독성으로 식물에 직접 뿌릴 수 있고 각종 병해 방제에도 효과적이어서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검정쌀, 일반 벼보다 5일 일찍 수확하세요!

- 농촌진흥청, 고품질 검정쌀 생산 위한 알맞은 수확 시기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검정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남부 평야지의 알맞은 수확 시기를 제시했다.
- 검정쌀의 주요 기능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으며, 빛깔이 고르고



까말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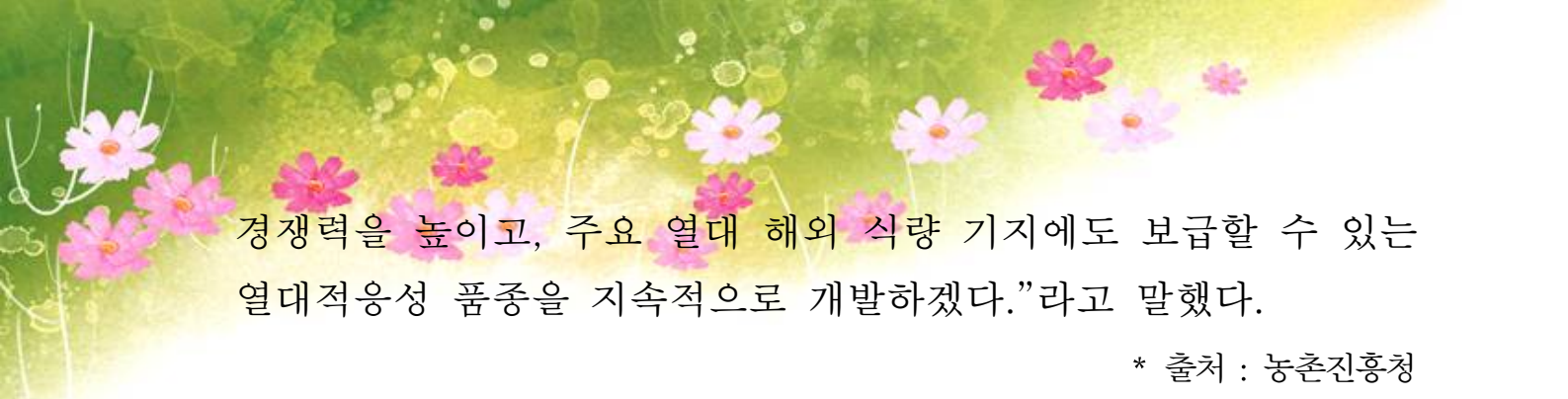
- 전국 검정쌀 재배 면적은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497ha (2014년 기준)에서 재배 중이다.
- 검정쌀은 여름 정도와 수량성을 고려해 일반 벼의 수확 시기인 이삭 켜 후 50일~55일 보다 5일 정도 앞당긴 이삭 켜 후 45일~50일이 알맞다.
- 국내에서 개발한 ‘흑진주’, ‘조생흑찰’, ‘눈큰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등 5개 검정쌀 품종의 수확 시기에 따른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의 함량 변화를 연구한 결과, 이삭 켜 후 35일~40일 정도에 기능성분의 함량이 높고, 그 이후 점차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조생인 ‘흑진주’벼는 수확 시기에 관계없이 비슷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 기능 성분 함량 측면에서는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지만 여름 정도와 수량성을 고려하면 이삭 켜 후 45일~50일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 이 계산 방법에 따라 검정쌀의 알맞은 수확 시기를 추정해보면 이삭 켜 때가 8월 1일인 품종의 경우, 45일 이후인 9월 14일까지 수확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수확 후 이용과 김욱한 과장은 “앞으로 검정쌀이 함유하고 있는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식품 또는 식의약 소재로서 이용도를 높이는 등 검정쌀의 용도 다양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아시아 열대지역 적응 온대벼 '아세미1호' 개발

- 해외교민 대상 쌀 생산과 해외 식량 기지 품종으로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아시아 열대 지역처럼 더운 나라에서도 잘 자라는 자포니카 쌀 ‘아세미1호’를 개발했다.
- 우리 벼 품종과 같은 자포니카 쌀을 열대 지역에서 재배할 경우, 낫 길이가 짧고 고온인 열대 환경으로 인해 벼를 심은 지 한 달 안에 이삭이 패고, 키와 줄기수가 줄어들며 이삭 길이도 짧아져 수량성이 떨어진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1992년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 상주연구원을 파견해 열대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수량 많은 자포니카 쌀 ‘아세미(2013)’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 ‘아세미1호’를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한 ‘아세미1호’는 필리핀 현지에서 1년에 2회~3회 가량 재배할 수 있다.
- 지난 3년간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 시험 재배를 추진한 결과, 수량이 520kg 정도로 현지 인디카 표준품종인 ‘IR72’ 보다 약 8.3%, ‘아세미’보다 약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세미1호’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자포니카 계열로서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용 쌀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해외 식량 기지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품종이다.
- 또한, 한반도 온도가 상승해도 적용이 가능해 고온에서도 벼가 잘 여무는 품종 개발 단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이점호 과장은 “‘아세미1호’는 국제적인 쌀 가격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유전자원을 수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쌀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주요 열대 해외 식량 기지에도 보급할 수 있는 열대적응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내년 양파 파종 준비하세요!

- 적기파종이 양파 수확량과 품질에 직접 영향 미쳐 -

-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白露)를 전후해서 기온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 월동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월동작물인 양파 모종 생산을 위해 종자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됨에 따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 양파연구소는 양파 모종 생산을 위한 종자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 파종의 중요성 홍보와 우량묘 생산을 위한 양파 영농 기술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8월에 비가 자주 내려 태양열 소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농가가 많았고, 본밭 정식 시기에도 비가 잦아 양파 묘를 늦게 심은 밭이 많았다던 것이 결국 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들고, 파종과 정식시기 기상상황을 고려한 적기 영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양파 종자의 파종 시기 결정은 그 지역의 일평균 기온이 15℃가 되는 날에서 육묘기간을 역산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경남지방의 경우 이번 달 5일부터 15일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파는 파종기가 빠르면 육묘기간 중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해 묘소질은 양호하지만, 그 묘를 심게 되면 활착이 빨라지면서 생육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다음 해에 양파 구가 2개로 나누어지거나(분구), 꽃대가 올라오는(추대) 등 생리장해 발생이

많아지게 된다. 반면에 너무 늦게 파종을 하게 되면 묘소질이 연약하고 정식 후에 활착이 지연되어 월동 중에 서릿발 피해로 죽는 포기가 많고 수확량도 적어진다. 특히 금년에는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므로 예년보다 파종시기를 2~3일 정도 일찍 파종을 하고 초기 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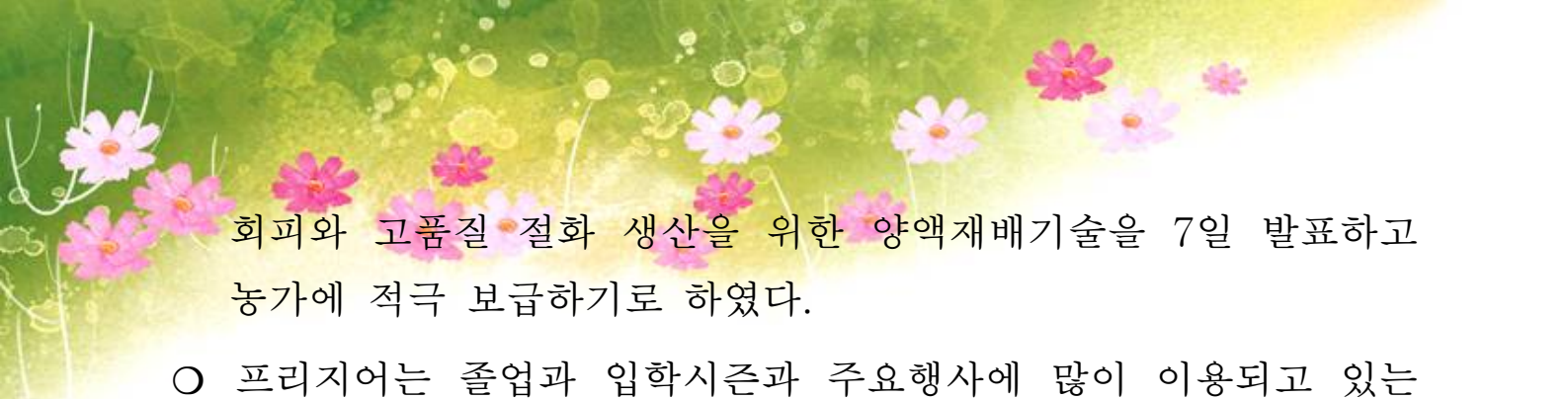
- 파종은 준비된 묘상에 줄뿌림이나 흩어 뿌림을 하거나, 전용 육묘 상자를 이용하여 파종하면 된다. 줄뿌림이나 흩어 뿌림을 할 때는 종자 100g(1홉)당 두둑 면적을 17~20㎡(5~6평)으로 한다. 파종 후에는 100g당 2~3포대의 톱밥을 덮어준다. 너무 두껍게 덮으면 싹이 균일하게 나지 않고 너무 얇게 덮으면 잡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톱밥을 복토한 후에는 묘상 터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관수를 한다. 태양열로 소독하지 않은 육묘상에는 잘록병 방제를 위해 파종 당일에 관수하고 나서 바로 적용약제(펜시쿠론수화제, 에디졸지오판수화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10ℓ/3.3㎡의 양으로 관주해 주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도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는 고품질 양파생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묘 생산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묘 생산을 위해 병해충 사전 예방 및 물 관리를 통한 모판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프리지어 양액재배 기술개발

- 프리지어 양액재배 시 적정 재배용토 선발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프리지어의 안정생산을 위한 연작장해



회피와 고품질 절화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기술을 7일 발표하고 농가에 적극 보급하기로 하였다.

- 프리지어는 졸업과 입학시즌과 주요행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꽃으로 우리나라 꽃 소비에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전북 지역의 재배면적이 6.1ha로 전국 재배면적 35ha에 비교하여 17%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전북지역 화훼산업과 농가소득에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프리지어의 주요 생산은 이듬해 2~3월로 졸업과 입학 시즌을 목표로 하는데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구근 심기를 끝마치고 지온을 25℃ 이하로 관리하는데 기존의 관행 재배 농가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토양재배로 인해 연작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최근 구근의 활력 저하와 바이러스병, 구근부패병 등이 심하게 발병되어 절화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은 프리지어 국내 육성품종을 중심으로 양액재배 배지선발 시험연구를 추진한 결과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1:1로 혼합한 처리에서 기존의 펄라이트 단용 처리보다 개화가 4일 정도 단축시켰고 부패병 등의 각종 병해의 밀도를 현저히 저하시켜 절화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실 이진재 박사는 “프리지어 안정생산과 고품질화 연구, 구근 저장기술 개발, 새로운 품종 육성으로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의 소득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개발기술 실용화나서

- 아로니아 함유 감와인, 와인 코팅 팽화 쌀과자 등 2건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9월 9일 도 농업기술원 와인 연구소에서 국내 와인산업 발전과 충북도내 와인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와인관련 특허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기술 2건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설명, 개발기술전시 및 기술이전 상담회로 진행된다.
- 소개되는 특허기술로 “아로니아 함유 감와인 제조기술”은 감와인 제조 시 아로니아를 첨가하여 와인을 제조하는 기술로 감와인에 비해 총폴리페놀 함량이 1.6배 높고 색상과 기호도가 우수하며, “와인 코팅 쌀과자”는 국내산 포도로 만든 와인을 쌀에 코팅하여 만든 팽화 쌀과자로 은은한 와인 향과 색, 바삭하고 담백한 식감으로 기호성이 우수하며, 항산화성도 증가하였다.
- 도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김시동 소장은“ 이와 같은 기술이 현장에서 실용화된다면 국산 와인의 다양화 및 체험·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전남 동물복지 축산농장, 안전성 확인

- 축산위생사업소, 인증 12곳 질병검사 등서 모두 적합 판정 -

- 전남지역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들의 질병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 11일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고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 8월 말 현재 전국 68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에는 산란계 10개, 양돈 2개 농장에서 6만 6천여 마리가 복지 수준을 인증받은 향상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육되고 있다.
-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에서는 이들 농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유해 잔류물질검사, 식중독균 검사, AI·구제역 등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판정돼 동물복지 농장의 사양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실제로 2014년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도 동물복지 농장은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AI 안전지대’로 평가받기도 했다.
- 김상현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동물을 키워내는 것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첫 걸음인 만큼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홍보에 힘쓰겠다”며 “친환경 먹거리 공급원의

중심지로 전남이 자리매김하도록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보다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

◆ 추석 앞두고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 14~25일 대형 마트·재래시장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 628품목 집중 -

-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시군, 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다. 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205개·가공식품 262개·수입농산물 161개 등 농축특산물 628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관련 거짓표시, 미표시 등 표시위반 사항을 지도·단속한다.
-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지난 설 4천 177개소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7건, 현지 시정 26건 등 총 35건을 적발해 현지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 박경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이 확인해 구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도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영광에 산림박물관 개관·숲 체험교육 장 기대

- 숲·식물·동물·목공예·식약용식물 등 전남 서부권 숲 역사 한눈에 -

- 전라남도는 산림 내 우수한 생태자원 종합 학습장이자, 도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한 영광 ‘산림박물관’이 개관됐다고 9일 밝혔다.
-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42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에서 완도수목원 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전남 서부지역 산림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불갑사 관광지구에 위치한 산림박물관은 연면적 1천 60㎡ 규모에 기와를 올린 전통 방식의 건축물로 건립됐으며, 숲과 생태를 테마로 한 4개의 전시실을 갖췄으며 입장료는 없다.
- 제1전시실은 ‘영광의 숲’, 제2전시실은 ‘식물’, 제3전시실은 ‘동물’, 제4전시실은 ‘목공예, 식·약용식물’로 구성했다. 또한 1개의 기획 전시실은 다양한 전시·홍보를 비롯해 지역 출신 또는 연고 작가의 전시를 기획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오는 1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상사화 축제와 연계해 기획전시실에서는 금, 은, 구리 등에 유리질의 유약을 녹여 붙여 ‘자연’을 소재로 꽃, 새, 인물 등 무늬를 나타내는 칠보공예와 도예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도 함께 계획

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은 체험교육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매년 50만 명이 다녀가는 상사화 축제와 함께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등 지역 관광자원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영광의 대표 관광지인 불갑산에 산림박물관이 들어서 상사화축제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브랜드 시책인 ‘숲 속의 전남’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 성장 가능성이 있는 343개 경영체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이다.
- 이번에 지정된 343개 경영체는 '14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379개의 경영체 중 '15.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 각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9개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 6차산업 인증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을 서면·현장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경영체에 한해 인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 자격요건 : 농촌지역 소재여부, 융복합 여부, 지역농산물 사용여부,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 등

** 사업계획서 : 경영상태,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

- 지역별*로는 전남이 5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4개소로 가장 많았다.

* 지역별 인증사업자(343개소) : 전남 53, 전북 52, 경기 48, 경북 42, 경남 37, 충북 30, 충남 27, 강원 24, 제주 23, 대전 4, 세종 2, 울산 1

-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한다.

- 【사업지원】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등을 위한 현장 코칭* 및 자금 지원,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에 필요한 지원

* 현장 코칭 : 세무, 경영, 기술, 유통,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 멘토단 구성·운영

- 【언론·온라인 홍보】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스토리, 제품 등을 TV, 신문 등 언론사에 취재사례로 소개하고,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에 인증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증정보를 수시로 제공

- 【인증표시】 6차산업 인증자의 사업장이나 인증자가 생산·가공한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6차산업 인증'을 표시

□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인증 사업자를 지정(9월말, 11월말)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인증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

□ 이정삼 농촌산업과장은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포상하여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리체계(DB화) : 6차산업 사업자(1만내외) →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우수 6차산업 인증사업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관원,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


- 9. 10부터 9. 25일까지 거짓표시 행위 등 중점단속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9월 10일부터 9월 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 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조사한다.

□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 식품에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 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한편 농관원은 대한제과협회와 협력하여 상반기에 제과점의 유기 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였다.

○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및 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하여 제과점과 관계기관에 배부하였고 대한제과협회 자율지도원 및 업주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및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교육인원 2,146명, 업체 방문·지도 1,916개소

○ 협회는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유기표시 기준 준수를 독려하였다.

□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 부적절한 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 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앞으로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8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하락세 지속

□ FAO에 따르면, '15년 8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보다 5.2%(8.5포인트) 하락하여 155.7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전년 동월에 비해 21%(42.6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이는 풍부한 공급량, 에너지가격 하락, 중국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육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 8월 식량가격지수는 '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식량가격지수: ('14.4월)211.5→(8월)198.3→(12월)185.8→('15.1월)178.9→(7월)164.2

<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 >

□ (곡물) '15년 7월(166.5포인트)보다 7% 하락한 154.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지난 2개월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지수는 크게 하락하여, 201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밀과 옥수수 가격 하락이 곡물가격지수 하락의 주요인이다.

○ 특히, 밀은 북반구의 예상보다 많은 수확량, 옥수수는 미국의 양호한 생산전망, 브라질의 수출량 증가 예상 등으로 가격지수가 하락하였다.

□ (유지류) '15년 7월(147.6포인트)보다 8.6% 하락한 134.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최근 식물성유지 가격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팜유 시장의 성장을 반영한다. 국제 팜유가격은 인도 및 중국 등의 수입 수요부진 및 생산량 증가 전망에 기인하여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설탕) '15년 7월(181.2포인트)보다 10% 하락한 163.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브라질 화레의 미 달러화 대비 지속적 가치 하락과 세계 제2의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2015/2016년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탕 가격지수 하락을 견인하였다.

□ (육류) '15년 7월(1727포인트) 지수에서 거의 변동없는 172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국제 양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타 육류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육류가격지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8월과 비교하면 18%하락 하였고, 동 기간 중 돼지고기 가격과 양고기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 (유제품) '15년 7월(149.1포인트)보다 9.1% 하락한 135.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분유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치즈와 버터도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근동, 북아프리카의 수입 감소와 풍부한 수출가용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14/15년도 대비 0.8%(20.9백만톤) 감소한 2,540.2백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생산량 전망치(전년대비): 밀0.6%(4.6백만톤), 잡곡1.5%(19.9백만톤) 감소 / 쌀0.7%(3.6백만톤) 증가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535.8백만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14/15년도 대비 1.2%(30.3백만톤) 증가한 수치다.

*소비량 전망치(전년대비): 밀1.3%(8.9백만톤), 잡곡1.0%(13.0백만톤), 쌀1.7%(8.4백만톤) 증가

□ 2015/16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은 2014/15년도 대비 1.0% (6.4백만톤) 감소한 643.2백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 전망치(전년대비): 밀0.3%(0.6백만톤), 잡곡0.8%(21백만톤) 증가 / 쌀5.1%(9.1백만톤) 감소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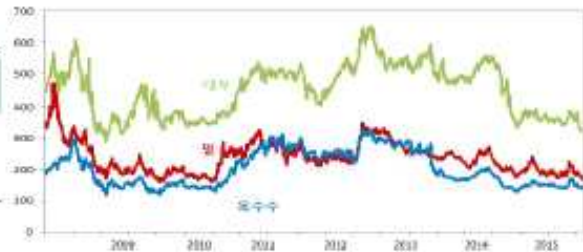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9. 14.(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 주요 작물 작황 우려에 가격 반등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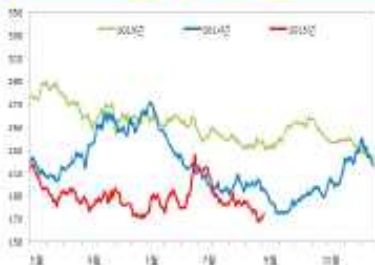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9.1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8)	2014 평균
밀	174.68	▲1.3%	183	216
옥수수	147.40	▲3.5%	145	164
대두	326.13	▲0.4%	34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11월, 옥수수: 9월물, 대두: 9월물) 장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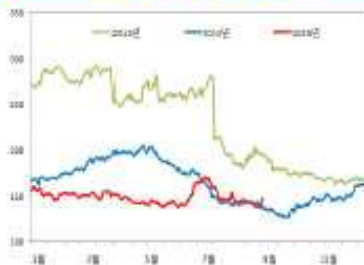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숯키버링과 옥수수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함. 미국농무부(USDA)의 9월 수급보고서는 15/16년 기밀제고량인 8억 7천5백만 부셸로 가격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전망함. 또한 최근 미국 밀은 약29만톤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무역거래가 다소 증가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USDA 월간 수급보고서는 전망. 뿐만 아니라 공급 우려의 확대와 예상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됨. USDA는 9/3 수출은 41만 톤으로 보고되며 14/15마케팅 연도로부터 143만 톤이 이월 됐다고 전망.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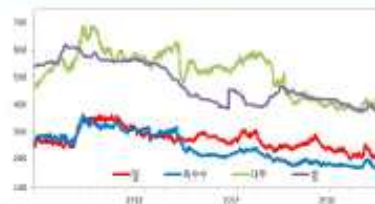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15/16년 대두 공급량 및 생산량, 기밀제고량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보합 마감함. USDA 월간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함. 주말 즈음의 미국산 대두 수출은 약 179만 톤으로 확인되며 14/15 마케팅연도에서 18만 톤이 이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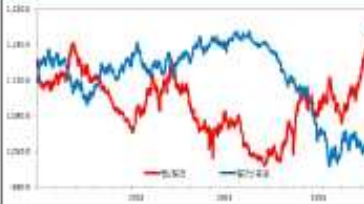
관련동향

- CIF 선적률 강세 및 수요 호전세로 대두 가격 강보합 마감
- 국제유가는 주요 기관들의 유가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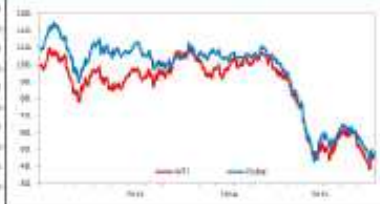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06	▲1.0%		원/달러	1195.8	▲0.3%
	옥수수	174	▲1.2%		달러/유로	1.1287	▲0.6%
	대두	360	▲0.3%		WTI	48.14	▲4.8%
	쌀	362	-		Dubai	N.A	-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ST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0월물), Dubai 연물

2) 기준일은 '15.9.10(수출가격), '15.9.11(환율), '15.9.11(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리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Dubai 연물유가는 싱가포르 유원(홍신)로 임편되지 않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대상자 공모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개소 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 지원(사업신청) 한도는 개소 당 1,000백만원(국고기준 300백만원)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6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9월
 - ② 사업신청서 제출 : 10월초
 - ③ 기본요건 검토 : 10월초
 - ④ 서면평가 : 10월초
 - ⑤ 사업대상자 현장확인 : 10월초~중
 - ⑥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12월

◆ 가을바람과 함께 너너해지는 9월 농촌축제

- 축 제 명 : 제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 기 간 : 2015. 9. 18.~9. 20.
- 장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 주요행사 : 사과수확체험, 승마체험, 동물농장, 이벤트 등
- 문 의 처 : 063-350-5447

- 축 제 명 : 제19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 기 간 : 2015. 9. 18.~9. 20.
-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 주요행사 : 복숭아 레크리에이션, 청소년가요제, 품바공연, 팔씨름대회, 전국 복숭아가요제 등
- 문 의 처 : 031-641-5215

- 축 제 명 : 강원 영월 김삿갓 포도 축제
- 기 간 : 2015. 9. 19
- 장 소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포도공원
- 주요행사
 - 체험행사 : 포도따기, 포도주담그기, 포도밟기 등
 - 포도전시 : 노스레드, 버펄로, 선발 캠벨, 베나 바라드 등 30여종
 - 이 벤 트 : 포도 빨리 먹기, 포도투호, 포도 중량 맞추기
 - 농산물 시식 및 판매 : 옥수수, 감자, 잡곡, 과일 등 지역 농산물
- 문 의 처 : 담당자 010-3641-3363

51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